

창간호

(2011년 3월 16일)

온라인 정치신문

사회주의자 통신

- 〈사회주의자 통신〉을 발간하며
- 편집자의 글

특집

리비아 혁명과 사회주의

[정치]

- 혁명의 자유는 옹호될 수 없는가?
- 사회주의자 재판

[현장통신]

- 집단교섭 투쟁 승리로 청소년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시작하자
- 공공운수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신복기 분회장을 만나다.

[투쟁과 전망]

-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포기는 없다
- 2차 파업을 준비하자

[서울지역위 활동]

- 2기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정치활동의 상
-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사노위서울실천단 활동보고

[쟁점]

- 당추진위 건설 경로와 무기로서의 강령

기획연재

사회주의 강령 토론

- 사회주의운동을 혁신, 재구성하자 - 장혜경
-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이 되어주는 강령이어야 한다 - 양효식
- 4인터안 강령 소개 - 최기영

[비평]

-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에 대한 비평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서울지역위원회

swc.jinbo.net

온라인 정치신문 〈사회주의자 통신〉을 발간하며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대표 유승철



온갖 형태의 모든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계급착취의 끝자락이다.
자본가 계급의 알뜰한 숨통을 움켜쥔 노동자 계급의 거칠고 억센 손등
이 가까이에 있다.

겨울은 길고도 추웠다.

살을 에는 추위에도, 봄의 시작을 알리는
아지랑이에도 자본가 계급의 착취와
억압, 무자비한 탄압은 더욱 거세고, 이에
맞서는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쌍용차, 현대차 비정규직, 한진중공
업, 발레오공조, 재능, 대우조선, 국민체
육진흥공단, 버스파업, 코아백화점...

2011년 4월 재보궐, 2012년 선거를 앞
두고 개량주의 의회주의 세력들은 쌍용
차 임무창 동지의 억울한 죽음마저도 득
표수라는 산술적 합의 증대에만 기대어
이해하며 행동하고 있을 뿐이다. 그 냄새
가 동네방네 아주 고약하다. 의회주의 세
력들의 모든 행보에는 투쟁하는 노동자
과 민중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약이 들어
있다. 민주당과 함께 하는 연립정부 수립
이라는 달콤한 독약이...

보신각 종 앞에도 죽음을 애도하는 추
모의 대열 속에도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해방을 향해 외치는 복수의 날서고 목멘
목소리는 없다.

단지 무수한 종이짱돌(의회주의 세력
들에게 던지는 투표-심삼정)을 던지자
라는 기만적인 천연색 유희만이 난무할
뿐....

“넋이라도 있건 없건, 연립정부 수립
을 위하여!”

반면에 우리는 튀지니에서 이집트에
서, 그리고 리비아 혁명에서 종이짱돌들
은 그냥 종이일수만 있을 뿐, 계급적대의
끝자락까지 투쟁들을 밀어부쳐 나아갈

동지들!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

단단한 혁명적 돌팔매질을 결코 대신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혁명의 기운이 다가온다. 공포에 떨게 하라! 종이짱들을 두려워하라?

자본가계급과 그들의 국가가 행사하는 온갖 폭력과 탄압, 그리고 죽음에 맞설 투표를?

종이짱들은 좌, 우로 휘날리고, 어불성설!, 감히 종이가 짱들이라니!

혁명은 말한다. 종이짱들을 던지자. 종이짱들로 리비아 상공을 선회하는 전투기를 추락시키자. 말이나 되나?

이제, 봄날의 아지랑이를 걷어 치워야 한다. 회미하게 가리어져도 어김없이 불쑥 튀어 올라 꽃피우고 열매 맺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새싹들의 뿌리가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한다.

한 번의 거대한 승리로 수많은 패배로 얼룩진 계급착취의 역사를 단번에 갈아엎을 노동자 계급과 민중의 위대한 사회주의 혁명이 뿌리내릴 이 대지를 더욱 단단하게 밟아주자! 마른땅에는 단비가 더욱 고마울 뿐이다.

온갖 형태의 모든 폭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계급착취의 끝자락이다. 자본가 계급의 알뜰한 숨통을 움켜쥔 노동자 계급의 거칠고 억센 손등이 가까이 있다.

무엇이 그토록 가까이 다가온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 전진을 막아서고 있는가?

노동자 계급의 미래를 밝힐 촛불, 혁명적 투쟁의 지도부, 바로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 정당이 없다. 인류의 이론적, 역사적 자산을 총화하고, 노동자 계급 투사들에게 투쟁의 방향과 지침을 더

욱 선명하게 안내할 혁명강령이 없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2011년 5월 당추진위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의 인터넷 신문 〈사회주의자 통신〉은 당 추진위 건설을 향한 적극적인 실천의 일환으로 다음의 두 가지 주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자 통신〉 발행자는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이지만 내용에서는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을 전개할 것이다. 인터넷 신문의 특성상 종이신문이 가진 분량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토론과 노동계급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은 동지들의 기고가 있다면 언제나 환영한다.

다음으로 사노위는 3개의 초초안을 가지고 강령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혁명적 강령으로 통일시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 통신〉은 사노위의 동지들이 어떠한 경향으로 통일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토론의 장을 만들 것이다. 이것은 현재 사노위에 참가하고 있는 동지들뿐만 아니라 사노위의 강령토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 투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임무이기도 하다.



편집자의 글

사노위 서울지역위 정책선전국장 김병호

2010년 5월 사노위는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목표로 출범하였다. 결성 과정에서부터 많은 관심과 우려가 공존하면서도 벌써 1년을 앞두고 있다. 기간 가입원서를 둘러싼 논쟁을 비롯하여 2차 총회를 경과하며 사노위 내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논쟁은 사노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지들에게 정확한 쟁점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채 억측과 오해를 낳고, 이는 사노위의 전망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러한 우려는 공세적이고 외향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해소되어야만 한다.

지면의 한계를 두지 않는 서울지역위원회의 인터넷 신문 〈사회주의자 통신〉은 서울지역위원회의 온라인 정치신문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전국적이고 정치적인 사회주의 정치선동의 도구로서, 또 한편으로는 추진위 건설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에 대해 가감 없는 논쟁의 장으로서 기능하고자 한다. 신문은 기획기사와 기고글로 구성되며, 기고는 서울지역위원회 동지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사노위 동지 및 사노위를 관심 깊게 지켜보는 모든 동지들에게 열려있다. 앞으로 〈사회주의자 통신〉은 당 추진위 건설을 위한 사노위 내부의 논쟁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조직 내외를 가리지 않고 정치적으로 예민하고 날카로운 비판들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토론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호는 특집 기사로 리비아 혁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다뤘다. 리비아 역시 튀니지,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혁명적 상황과 유사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달리 극심한 내전으로 치달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리비아 혁명은 이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혁명의 교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정치에서는 지난 2월 25일 사회주의자 재판 1심 선고 공판이 있었다. 사회주의자 재판은 피고가 된 몇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향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재판이다. 이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치사상의 자유일반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가 부정한 것은 바로 노동자 계급의 자유, 혁명을 할 자유를 부정한 것이다. 정치 코너

의 ‘혁명의 자유는 옹호될 수 없는가?’에서 사회주의자 재판의 의미를 밝힌다.

사노위는 5월 당추진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앞두고 2월에 세 개의 강령초초안이 제출되었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강령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연재 코너에서는 강령토론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의 장이다. 그리고 첫 기획으로는 각각의 초초안 발의자들의 의견을 담았다. 쟁점에서도 추진위 전망과 강령의 위상에 관한 기고글을 실었다.

지역위 활동란은 서울지역위원회의 활동상을 그려내는 코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2월 사노위 서울지역위 총회를 통해 출범한 2기 서울지역위원회 출범의 의의 및 사업 방향을 밝힌다. 2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서울지역위원회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기치 아래 진행된 사노위 서울실천단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그 소식을 전한다. 이와 관련하여 투쟁과 전망 코너에서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울산,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지들의 글을 담았다. 그리고 현장통신에서는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병원과 함께 공동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대 분회 신복기 분회장을 만났다. 새롭게 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본다.

비평란에는 다양한 매체 혹은 입장들에 대한 비평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사노위에서 발행한 소책자 〈사회주의의 지금 여기에!〉에 대한 비평을 기고글로 실는다.

이번 호는 특집 기사로 리비아 혁명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다뤘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리비아 혁명은 이미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혁명의 교범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고메일 : cswp-seoul@jinbo.net

온라인 정치신문

사회주의자 통신

기고메일 : cswp-seoul@jinbo.net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서울지역위원회
swc.jinbo.net



“내전도 역시 전쟁이다. 계급투쟁을 인정하는 자는 내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내전이란 모든 계급사회에서의 계급투쟁이 자연스럽게, 어떤 조건 아래서는 불가피하게, 계속되어 발전하고 격화했던 결과이다. 모든 대혁명이 이를 확증해주고 있다. 내전을 부정하거나 혹은 잊어버리는 것은 극단적인 기회주의에 빠지는 것이며 사회주의를 단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강령」, 1916년)

리비아 혁명과 사회주의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김해화

내전

최근 리비아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알다시피, 수도 트리폴리를 차지하기 위해 긴 해안 도시들을 따라 저항세력과 가다피 '정부군' 사이의 내전이 격화되고 있다. 가다피의 군인들이 탱크와 전투기로 '무차별 폭격'을 가하면서 트리폴리 길목의 시르트와 석유 수출항인 라스라누프를 탈환했다. 그리고 저항세력이 장악한 미스라타를 공격하고 있다. ; 아랍연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했다. ; 미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현명한 조치' 인지 여전히 회의하고 있다. 미국은 이 공을 나토에 넘기고 "모든 비상대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다(EU는 뒤늦게 저항세력의 '임시정부'인 국가평의회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했다). 이처럼 리비아는 지금 내전으로 깊숙이

빠져들었다. 그리고 내전은 인용한 바와 같이 계급투쟁이 계속되고 발전되어 온 필연적 결과이다. 가다피는 오직 저항세력을 쳐부술 생각으로만 가득 차 반격을 피하고 전략 도시와 석유산업과 연결된 항구들을 장악하기 무차별 폭격을 가하고 있다. 리비아의 내전은 혁명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구체제를 분쇄하고 자유와 해방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가다피의 군사들과 용병들의 발톱에 패배할 것인가를 다투는 결정적이고 중대한 국면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저항세력들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이다!

혁명의 코스

리비아 혁명도 튀니지, 이집트 그리고 이전의 모든 혁명들의 특징을 공유하



고 있다.

첫 번째로 이 혁명은 빵과 자유를 위한 대중운동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운동은 쇠퇴의 막바지 그리고 수렁에 빠진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의 산물이기도 하다. 대령 가다피와 그 일가의 오랜 독재 체제 아래서 리비아 민중의 35%는 굶주림에, 30퍼센트는 실업의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자유를 짓눌려왔다. 최근 언론에 알려진 트리폴리 아부 살렘 교도소에서 수감되었던 한 사람은 단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이유로 끌려온 이들이 정식 기소나 재판 절차도 없이 구금된 이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였다. 그는 45일 동안 매일 '규칙적인' 구타에 시달리고 '모의 교수형(처형)'으로 심각한 정신적 외상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이 교도소에서는 1996년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재소자 1,200여명이 총살을 당했다.



둘째, 혁명적 투쟁이 발전과 격화의 필연적 과정으로 결정적인 국면인 내전 상황에 이르렀다. 가다피와 그의 일가 그리고 동맹자들은 구체제를 지키기 위한 집념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저항세력-곧 리비아의 민중들을 궤멸시켜내서라도 이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이는 떠돌고 있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로서 가다피의 동반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가다피를 내쫓아낸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리비아 민중에게 유일한 자유와 해방의 길은 구체제를 남김이 없이 일소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권력을 떠안는 것뿐이다! 자발적으로 무장한 인민들이 구체제의 군대 그리고 용병들과 격돌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화적 이행의 환상을 '행동'으로 무너뜨려버리고 있다. 리비아 민중의 '저항폭력'은 불가피하게 새로운 권력의 탄생을 위한 '공세적 폭력'으로 나아

갔다. 리비아혁명을 기존의 '색깔혁명'들과 유사한 것으로 그려내는 언론들과 진보주의자들은 명백한 이 진실에 눈을 감는 것이다. 이런 국면에서 비폭력 저항은 어떠한 희생도 치르지 않고 혁명을 진전시키겠다는 것은 또한 아무것도 얻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혁명적 대중투쟁의 지속과 발전은 이 투쟁의 지도적 기관이자 새로운 권력의 모태를 창출했다. 혁명적 투쟁의 발

세력이다. 이들은 혁명의 결과 자신들의 지배권을 세우고 다시 제국주의와 거래하는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것은 다른 모든 혁명에서 보여준 것처럼 혁명을 유산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리비아 민중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 혁명을 더욱 밀고 나가 그들 자신의, 대중의 수중에 권력을 옮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들은 '임시정부'의 장벽을 뛰어넘고 진정한 혁명적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이전의 모든 혁명들은 이러한 진실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리비아혁명은 우리에게 혁명적 이행의 길들에 대해서 살아 있는 교과서가 되고 있다. 누구든지 혁명을 원한다면, 리비아혁명에서 배워야만 한다!

다른 점

그렇지만 리비아 혁명은 몇 가지 이유에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와 다르다. 리비아는 약 6백만이라는 적은 인구가 커다란 지역에 살고 있다. 인구의 50퍼센트 이상은 트리폴리와 그 주변 그리고 이와 가까운 자위야 등에 거주하고 그리고 동부의 뱅가지와 튀브룩 그리고 더 적은



수인 베두인 유목 공동체는 광대한 사막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다. 리비아는 석유수출(하루 생산량 140~160여만 배럴, 혁명의 과정에서 이 생산량은 급감했다)로 얻어지는 금융(금리생활)국가이다. 그렇지만 그 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어 있다. 막대한 '오일머니'를 손에 쥐고 소수의 사람들과 일부 부족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 다수의 부분들을 착취하는 체

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리하여 가다피는 자신의 체제에 몇몇 부족을 강하게 묶어 내고 나머지를 배제했다. 트리폴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은 반면 동부의 나머지 지역은 굶주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 체제를 떠받치는 군사력 곧 ‘혁명 위원회’는 전통적인 상비군이 라기보다 가다피에게 충성을 맹세한 ‘청부업자들과 같다. 이 군사는 그의 아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며, 정상적인 국가기구의 밖에서 비용이 지불되고 또한 훈련된 이들이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은 주로 튀니지 등 외국에서 이주한 이들이다. 외국 노동자들은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면 쉽게 추방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저항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달리 가다피에 맞선 저항은 수도가 아니라 배제되고 따라서 증오와 적대심이 자라난 다른 도시들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혁명에 완전히 새로운 동학을 만들어냈다. 이집트혁명은 수도의 청년들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곧바로 나일강 삼각주의 산업도시의 노동자계급으로 확산되었고 그 다음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저항세력들은 선거권을 포함하여 완전한 민주적 권리를 요구했고 이러한 정치적 투쟁과 혁명운동의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으로 수도를 장악하는 길로 나아갔다. 그렇지만 리비아는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러한 코스들이 가로막히고 체제를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내전으로 치달아야 했다. 트리폴리에서 대중시위는 매우 잔인하고 충성을 약속한 가다피의 무장군에 의해 짓눌렸다. 따라서 군사들이 결집한 수도에서 대중투쟁이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 군대 내 동요와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저항세력 쪽으로 돌아서는 일들이 매우 적었다. 그래서 리비아에서의 내전은 다른 어떤 혁명에서보다 치열하고 또는 유혈적이며 지속적으로 되었다. 다수가 이주노동자들이라는 점 때문에 파업과 총파업 등으로 이집트와 튀니지의 독재자들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리비아에서는 어렵게 되었



다. 이는 저항세력과 (이주)노동자들과의 분열적 상황을 낳기도 하고, 노동자들 상당수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거나 피난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노동자계급이 이 혁명적 투쟁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나아가 누가 국가를 통치할 것인가라는 결정적 문제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결집은 다른 혁명들과 다른 핵심 문제이다. 리비아 저항세력들은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 이 (이주) 노동자계급을 튼튼히 묶어세워내야 할 필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대령 가다피 체제

이제 1969년 9월 자신의 지도 아래 이뤄진 무혈 쿠데타로, 부패하고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이드리스 왕정을 물러나게 한 가다피 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다. 그가 비무장 저항자들을 향해 ‘무

차별 폭격’을 가한 공습과 고삐 풀린 무장 용병들을 풀어놓음으로 혁명의 단계는 내전 국면에 이르렀다.

베두인을 배경으로 27살의 대령 가다피는 가말 압델 나세르 정권, 타락한 군주인 파로우크 왕에 맞서 구테타를 일으킨 나세르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은 세대였다. 나세르의 수에즈운하 국유화,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그의 적대적 성격, 그리고 그의 범-아랍주의와 연대의 호소는 그에게 강력한 매력을 안겨주었다. 리비아는 지정학적으로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왔다. 그렇지만 이 나라에서 부르주아지들은 민족주의가 아니라 이러한 제국주의와 이해를 같이하고 이를 계급지배의 토대로 삼았다. 리비아는 1911-1943년까지 이탈리아의 식민지 지배 아래서 파시스트들에 의해 말 그대로 절반이 굶주리고 학살당했다.

가다피 체제는 하피즈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나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처럼 1960년대 바스주의(아랍민족주의)운동 분파들에 의해 수행된 쿠데타로 탄생하여 스스로를 혁명적이라거나 “사회주의” 상표를 내걸고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맞섰다.

이런 경험과 역사 때문에 리비아 대중의 광범위한 반제국주의 정서는 가다피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하고 월러스 공군기지(트리폴



리 비행장)에서 미군의 추방과 미국 정유회사의 국유화,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튀니지 등 범아랍 연합을 밀어붙이고 이러한 시도들은 대중적 지지를 낳았다. 반면 가다피는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2003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서방 제국주의에 더욱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더욱 많이 의존하고, 자기네 나라의 석유와 무기들을 거래하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최근 가다피는 오바마 행정부와 7천 700만 달러에 이르는 군용차량을 거래하려다가 혁명이 발발하면서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프레시안, 2011. 3. 7., 인터넷). 미국 국무부 대

변인이 뒤늦게 “리비아가 인권 문제에서 진전을 보일 때까지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무기수출 가능성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뒤늦게 말했다. 그러면 혁명 이전에 그들이 판매한 무기는 리비아 민중에게 치명상을 가하지 않았는가! 가다피는 자신의 체제를 “사회주의 인민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라고 선언하고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했다고 선언했지만, 강력하고 잔인한 독재를 유지하면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운동에 대한 무자비한 억압을 해왔다. 어떠한 파업과 시위도 금지되었고 감옥에는 정치적 억류자들로 넘쳐났다. 그리고 이에 맞선 저항과 혁명은 이

들의 ‘아랍 민족주의’ 깃발에 새겨진 억압 체제를 무너뜨리는 길로 갈 것이다. 따라서 혁명이 더욱 확고해질수록 민족주의도 붕괴할 것이다. 한겨레신문 따위는 물론 시오니즘에 맞선 이데올로기는 아니지만 “아랍국가들의 현실을 극복해 민주주의를 이루려는 민중들의 연대”로서 “범아랍주의는 아랍 민중들 사이에서 여전히 강한 소망으로 남아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랍 민중들의 연대는 민족주의를 통하지 않고 리비아에서 대령가다피 체제를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 오랜 독재 체제를 완전히 분쇄하고 공동의 해방사회를 구성하려는 운동들 속에서만 가능하다.

피로 물든 제국주의에 혁명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매우 적대적인 환경에서 미국 군대가 심대한 손상을 입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또는 이라크 시나리오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있다. 지금 그들은 개입의 공을 나토로 떠넘겼다. 이는 러시아가 안전보장이사회가 선택하는 어떠한 행동계획이든 거부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리비아 석유에 커다란 이익을 걸고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어느 정도 집념을 보이고 있다. 뱅가지의 전국평의회는 가다피 전투기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당하고 나서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 트리폴리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듯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을 지원하는 누구든지 포스트-가다피 체제 아래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서방 제국주의가 손길을 뻗치기를 바란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신들의 손을 피로 물들여온 제국주의에 다시 약탈의 기회를 제공해줄 위험이 명백함에도 말이다. 이 점에서 오바마의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진실을 말해주었다. “솔직히 카드를 내보이자면 비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지원이 아니라 국제주의에 기초한 혁명적 연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리비아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항공금지구역(설정은 [리비아의] 방공진지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의 시작이다.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그것이다.”, “리비아에 전투기들을 날려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친구들을 “짜 죽이게 될 것”인데 이는 출발점일 뿐이다. 곧 이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보아왔던 것처럼 리비아가 혁명이 아니라 전쟁으로 이끌리게 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제국주의는 결코 자유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항세력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바라고 또 이를 밀어붙인다면 제국주의 장악력을 높여내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며,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개입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에 의한 어떠한 ‘지원’도 제국주의 세력의 수중에 더 많은 것들을 쥐어주는 반면 투쟁하고 있는 저항세력들은 가지고 있던 것마저 잃는 상황을 낳게 될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리비아 민중의 자유와 해방이 아니라 북아프리카 지대에서 가장 풍부한 비축량을 지닌 석유와 거

기로부터 뿔어져 나올 이윤에 침을 흘리고 있다.

물론, 리비아 저항세력이 반혁명을 분쇄하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주의에 기초한 지원과 연대가 당연히 필요하다. 리비아 저항세력들은 리비아혁명이 리비아 민중들 자신의 것이고, 오직 그들에게 한정된 것이기를 원했다. 어떤 점에서 그들은 리비아혁명이 리비아 한 나라의 것일 뿐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옳게도 서방의 어떠한 지원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는 서방의 지원이나 원조하는 것이 그들에게 타협하기를 바라고 따라서 내전이라는 현재 국면, 상황 속에서는 민중들을 가다피의 학살에 내맡기고 혁명의 잔인한 유산을 낳을 뿐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리비아 혁명은 리비아 민중의 것만이 아니다. 리비아 혁명은 전 세계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 대중 모두의 혁명이다. 리비아 혁명의 승리는 또한 우리 모두의 승리이다. 그리고 그 승리를 항구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에서 혁명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인도주의적 개입’이나 지원이 아니라 국제주의에 기초한 혁명적 연대,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연대와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리비아혁명을 지원하기 위한 행동을 펼쳐나가야 한다.

하였다. 그리고 비무장 저항자들에 대한 대량학살에 대해서도 침묵을 지켰다. 전 세계 민중들에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조차 그는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침묵했다. “리비아에 관해서 거짓캠페인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오랜 친구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겁쟁이나 하는 짓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대체 누가 겁쟁이고 비겁자인가? 실은 혁명이 대륙을 건너 자신을 건드리게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는 명백한 겁쟁이다. 쿠바의 카스트로 또한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2월 13일 ‘이집트의 혁명적 반란’이라는 논평에서 이집트 민중들의 시위에 대해서 지지를 보냈다. 그것은 무바라크 정부가 친미적이라는 이유이다. 반면, 리비아 혁명에 대해서는 차베스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에 뉴스가 넘치는 상황에서 진실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감히 말하기를 회피했다. 가다피가 ‘반미주의자’라는 생각에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미 가다피는 친미, 친제국주의자로 돌아선 것을 그가 모르는 것일까? 더욱이 리비아혁명은 친제국주의 체제와 정부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오히려 철저한 변혁의 완수와 승리는 오히려 제국주의를 또한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리비아혁명을 둘러싼 그들의 태도와 행동은 이들 나라의 “21세기 사회주의”가 얼마나 커다란 허위인지 잘 보여주었다. 또한 이러한 “21세기 사회주의”를 슬로건이나 이념, 지향을 따르는 진보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들의 심각한 오류도 잘 보여주었다. 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차베스와 카스트로를 옹호하기도 한다. 이는 가다피에게 ‘인권상’



21세기 사회주의의 허상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가다피의 잔혹한 독재 체제를 비난하기를 거부

가다피와 친분 깊은 독재자들



을 수상하면서 인권과 자유를 신장시켰다는 전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의 말처럼 치욕스러운 것이다.

차베스는 “그의 친구” 가다피에게 전화를 걸어 저항세력과 중재를 위한 “우호적 국가(우방)” 연합을 친절히 제안하기도 하였다. 가다피의 못난 아들들과 그의 도살자 동료들은 심지어 가다피가 카라카스의 은신처로 도망을 치는 한이 있더라도 중재를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대신에 무차별 폭습과 폭격 그리고 즉결 사형으로 리비아 민중들이 궤멸되더라도 혁명을 끝장내고 싶어 한다. 이러한 상황이 내전을 더욱 격화시켜내고 있다.

차베스와 카스트로, 이란의 마흐무드 아메디네아드, 짐바브웨의 로버트 무가베 그리고 리비아의 가다피는 사이비 “반제국주의”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가다피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프

랑스, 영국의 치마폭에 놀아나면서 반제국주의자인 양 보여지기 위해 매우 우스꽝스런 모습들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나라들이 한동안 제국주의에 맞서고 또 그들의 표적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혁명적 체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자기 인민들을 착취해온 바탕 위에 선 체제를 유지하고자 할 뿐이었고 심지어 제국주의에 제대로 맞설 능력과 의지도 갖추지 않았으며 가다피가 보여준 것처럼 제국주의와 실제로 적대하지도 않았다.

우고 차베스는 “새로운” 세계 노동자운동의 지도자의 옷을 걸쳐 입고 그와 정반대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베네수엘라는 어떠한 의미에서도 “사회주의” 나라가 아니다. 이를테면,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불평등도는 20세기 이른바 ‘사회주의(국가자본주의)’ 나라들보다 훨씬 더 크며 토지개혁은 강력하게 추진되기는 했지만 지주와 소작농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지주들이 고용한 총잡이들이 토지개혁의 지지자들을 암살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막는 것도 실패했다(제임스 페트라스, 『역사를 통해 본 라틴 아메리카의 21세기 사회주의』, 『실천』, 2010년 9월호). 차베스는 작년 한 해 동안 그는 제5인터내셔널 건설을 호소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런 회의도 소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낭비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우회전”의 특징들을 더욱 많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의 21세기

사회주의는 대령 가다피의 야만적 체제와 리비아에서 오래 동안 인민들을 억압해온 ‘혁명적 위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는 부르주아 반대파 정치가들과 협정을 맺고 그에게 맞선 쿠데타를 석방해준 반면, 2009년 체불임금에 맞서 2주 동안 파업을 이끈 노조연합의 루벤 곤잘레스에게는 7년 6개월을 징역형을 선고했다. 곤잘레스는 지금 1년 반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사회주의”를 표어만이라도 차용하고 더 나아가 그것으로부터 강령과 대안을 이끌어 내거나 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로부터 무언가 “대안사회”를 배우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환상이며 부질없는 것인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리비아 혁명은 여러 점에서 혁명의 교과서가 되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도,
어떠한 제국주의 개입도 반대한다!

리비아 혁명을 위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를
독재자 가다피와 그의 체제에 대한
완전한 타도를
리비아혁명이여 영원하라!

쿠바도 베네수엘라도
한국에서도 노동자혁명을
“21세기 사회주의”,
가짜 사회주의가 아니라
혁명적 사회주의를!

계속혁명!





혁명의 자유는 옹호될 수 없는가?

— 사회주의자 재판 —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 사노련 오세철 교수 집유”

- 2월 24일, 한겨레 신문 사회면

“법원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 2월 24일, 경향신문 사설

“우리가 오늘 오세철 선생님을 방어해드릴 수 있다면 내일은 우리들의 표현 자유부터 강화될 것”

- 박노자 교수

2011년 2월 24일. 사노련 국가보안법 선고 판결이 있었다. 많은 이들이 이번 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 근거로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옹호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에 대한 옹호만으로는 이번 판결을 일관되게 반대할 수 없다.

법원의 유죄 판결 기준을 살펴보자.

사노련이 ‘국가변란 선전 선동 목적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

서는 사노련의 목적이나 실제 활동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면서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통한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의 수립’을 선전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며 ...

- 판결문 243쪽 중에서, 강조는 필자

강조한 “하면서”에 유의하라. 법원의 유죄 판단 기준은 ‘결합’에 달려있다. 어떤 결합?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과 무장봉기의 결합, 이것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의 핵심 기준이다. 체제에 대한 비판도 좋다. 사상의 자유? 인정한다.

한편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하면 무장봉기 내지 폭력혁명 등을 통한 정부의 전복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본주의 철폐’, ‘노동자정부 수립’, ‘사회주의 혁명정당’, ‘생산수단의 몰수 국유화’, ‘정치총파업’ 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판결문 244쪽

심지어, 폭력도 괜찮다. 예를 들어,

위 글에서 제시된 ‘노동자 정당방위대, 파업사수대, 선봉대’의 구성은 그 목적이 현 정부의 전복 및 새로운 정부 수립에 있지 아니하며, 경찰이 폭력적으로 합법적 집회를 해산하려고 할 경우에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제시된 수동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괴고인 박준선 명의의 위 글이 국가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판결문 289쪽

그러나 비판하면서 폭력을 선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비판과 폭력의 결합이 유죄다. 따라서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한 가장 일관된 반대는, 이 결합을 옹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상의 자유뿐만이 아니라, 혁명을 할 자유는 옹호될 수 없는가? 도대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떻게 작동하기에, 투쟁하는 노동자는 스스로의 조직된 무장을 준비해야 하는가?

법원에서 밝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다음과 같다.: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 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왔다는 매우 의심스러운 선언을 제외하면, 법원의 주장에 속이고 감추고 할 무언가는 없다. 핵심이 이미 다 나왔다. 권력분립, 복수 정당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와 사유재산제도. 이 모든 것이 결합하여 작동하면, 만족스런 결과를 내기에 충분하다. 누구에게, 어떤 만족스런 결과인가?

가장 최근의 계급투쟁,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질문에 대한 훌륭한 답변을 제공한다. 대법원도 인정했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라!” 그런대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행을 위해서조차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투쟁에 대한 정몽구의 답변은 무엇이었나? “너 아니

어도 일할 사람 많아.” 투쟁에 나섰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어린 학생들로 인력을 충원한다. 여기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첫 번째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사유재산제도. 공장은 자본가의 것이다! 자본가의 허락이 없다면, 공장에서 일할 수 없다. 그리고 일거리가 없는 노동자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자본가의 권력이다.



점거파업은 이와 같은 자본가 권력에 균열을 내는 가장 직접적인 투쟁이었다. 공장은 노동자들에 의해 굴러가며, 자본가야말로 전체 생산과정에서 필요 없는 잉여 인간이다. 공장에 대한 자본가의 통제가 일시적으로 무너진다. 그러니, 점거파업을 박살내라! 노동자들의 투쟁을 용역강패



와 관리자들을 동원한 폭력으로 찍어 눌러라! 막대한 시설 무장조직은 자본가가 공장에 대한 자신의 사적 소유를 유지하기 위해 집어들 수 있는 손쉬운 무기 중 하나다. 공장에 대한 통제를 되찾고, 법의 집행을 유예시켜라! 유예의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 지배를 동의된 지배로 탈바꿈시키는 것에 있다. 불법 파견이 문제라면, 파견을 합법으로 만들자!

이제,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나머지 '아름다운' 요소들이 등장할 차례다.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의회제도 기타 등등. 이른바, 민주주의. 기회는 저기 국회에 존재한다. 먼저, '협박'을 한다. 파견 금지는 자본 축적의 악화로 이어져, 고용을 축소시킬 것이다! 그 다음, 소위 말하는 민주적 절차, 표결을 거친다. 법이 자본 쪽으로 기우는가?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지지할 만한 것이다. 요컨대 의회제도는, 입법에 있어서 자본의 협박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활용된다. 여당과 야당, 서로 견제하기 위해 분립된 모든 권력들이 이러한 자본의 권력과 협박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어르고 달래면서 약간의 양보를 구걸하던가, 아예 자본의 편에 서던가.

이로부터, 핵심적 과제가 도출된다. 자본의 권력을 해체하라! 즉, 막대한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인 통제를 보장하는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이를 노동계급 전체의 민주적 통제로 전환하라! 비정규직을 끝장내는



투쟁은 자본의 권력에 맞서서, 궁극적으로는 이 권력을 해체할 노동계급 자신의 권력을 세워내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는, 용역강패와 경찰의 물리력에 대항한 일상적 투쟁이 날마다 재확인시켜주는 바와 같이, 노동계급 스스로의 물리적 강제력을 확보하는 작업과 분리될 수 없다.

결국, 이번 사회주의자 유죄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핵심은 자본에 맞설 노동자 계급권력의 싹을 자르는 데 있다. 이런 저런 자유는 실질적인 알맹이가 없는 한에서 인정된다. 공장에 대한 통제? 괜찮다. 다만 그것이 공장점거파업 같은 현실화된 투쟁의 형태로 제기되지 않는 한. 사상의 자유는 그 사상의 현실화를 위해 필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한에서 보장된다. 용역강패를 동원한 자본가의 폭력? 괜찮다. 그것은 사적소유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폭력이었다. 대항 폭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표현인 한에서 옹호될 수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 자본과의 지리한 모든 투쟁들을 끝장낼 궁극적인 투쟁을 할 자유는 박탈된다. 혁명을 할 자유를 금지하라. 자본의 권력만은 온전히 보존하라. 투쟁이 이런 저런 양보를 끌어낼 수는 있게 되더라도, 자본의 권력만은 해체할 수 없게 하라. 사회주의자들이 유죄 선고를 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



집단교섭 투쟁 승리로 청소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시작하자!

- 공공운수 서경지부 이화여대분회 신복기 분회장을 만나다 -

사노위 서울지역위 정나위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1월, 49일 간의 본관 점거 농성 끝에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던 홍익대 노동자들의 뒤에는, 그들의 투쟁과 노동의 가치에 관심 가지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다.

그리고 최근, 홍익대 투쟁에 이어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청소, 경비 노동자들이 ‘단결투쟁’에 나섰다. 사업장을 넘어서 한국 사회 전반에 청소 노동자들이 처한 비슷한 현실을 함께 바꾸자는 취지로 시작된 ‘집단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집단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은 1. 생활임금 5,180원 쟁취 2. 휴게실 개선 3. 진짜 사장 대학 총장 직접 고용을 걸고 싸우고 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다.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고,



최저 임금 정도만 받아도 된다’ 는 지금 사회의 견고한 틀을 깨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집단 교섭은 지난 10월부터 3월까지 13차례나 열렸으나 모두 결렬되었고, 8일에는 800여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총 파업을 했지만, 진짜 사장 학교 본부는 뒷짐 지고 있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집단교섭 투쟁을 열심히 만들어가고 있는 공공노조 서경지부 이화여대 분회 신복기 분회장을 만났다.

1. 이번 투쟁의 의미는? 처음에 어땠는지?

- 서경지부에서 ‘이제는 연대 투쟁이 아니라 단결투쟁이다’ 라는 의미에서 집단 교섭을 처음 시작하자고 했을 때는 많이 망설였다. 이화여대의 경우, 노조를

만든 지 일 년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 사업장 투쟁하기에도 바쁘는데 다른 사업장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게 업무가 안 나서 그랬던 것 같다. 하지만 서경지부와 여러 번 논의하고 조합원들과 총회도 한 결과 집단교섭을 함께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 청소 노동자들이 각 사업장별로 교섭하고 싸운다고 해도, 서로 연대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우리 이화여대 분회가 처음 생기고 투쟁할 때 연세대, 동덕여대, 고려대 등 많은 조합원들이 함께한 게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서경지부 내의 사업장들은 중요한 투쟁 있을 때마다 함께한다. 집단교섭을 통해 함께 교섭하고, 함께 싸운다는 게 사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매번 교섭 때 최저 임금에서 100~200원 올리는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노동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집단교섭을 통해서 ‘생활임금’도 요구하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뭉쳐서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2. 투쟁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 사실 많이 힘들었다. 여러 용역업체들과 사업장이 함께 교섭을 하다 보니 교

섭 자체도 길고, 장소도 우리 현장이 아니라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 사실 교섭이라는 게 얘기 하면 풀리는 그런 게 아니지 않나. 얘기해도 안 되는 게 많으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 하지만 다른 분회와 함께 투쟁하고 교섭해서 함께 하는 힘을 더 많이 느꼈다. 그리고 이대 분회의 경우 파업을 이번 3월 8일에 처음 해봤는데,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힘도 많이 느꼈다. 집단 교섭을 통해 힘을 많이 모은 만큼, 좋은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한다.

3. 집단교섭 요구안 세 번째가 ‘총장 직접고용’ 이었는데 이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이번 집단교섭 투쟁에 요구안으로 있기는 했지만, 사실 임금 문제에 대해서 교섭에서는 주로 이야기한 것 같다. 하지만 총장 직접 고용은 매우 필요한 요구안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요구가 실현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청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역, 비정규직만 늘어나지 않나. 우리 학교 학생들도 아무리 공부하고 좋은 학교 졸업해도 대부분이 비정규직 되거나 용역 업체 소속

이 되는 현실이다. 지금 사회 자체에 비정규직이 원체 많으니까. ‘청소’ 노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고용이 되니 더 문제다. 사실 원청에서 편하려고 용역 쓰는 건데, 안 좋은 피해는 다 우리한테 온다. 이번 교섭 때도 회사와 이야기하다보면 회사는 조금만 어려운 문제 이야기 하면 ‘그건 학교 책임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학교 본부와 면담을 하다보면 ‘그 문제는 용역 업체와 할 이야기’ 라고 한다. 이러다 보면 말이 와전되기도 하고, 오히려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다. 어려운 문제고 풀기도 쉽지 않겠지만, 길게 보고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싶다.



I 편집자 주 I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9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있고,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지금의 사회에서, 이 현실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노동자들이 뭉치고 단결해도, 사측과 학교 본부는 서로 눈치 보며 책임 회피하기에 바쁘다. 3월 8일 총파업 직후인 10일 열린 13차 집단교섭에서 사측은 기존에 이야기했던 안마저 다 폐기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4,320원 최저임금’을 이야기했다. 내가 일하는 이곳, 이 학교가 나의 고용주가 되어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적인 이야기다. 이 상식을 사회에서 지켜가기가 이렇게도 힘들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뭔지도 모르고, 용역 업체가 뭔지, 최저임금이 올해 얼마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냈던 노동자들이 지금 현실에 대해 저항하고 있다. 단결하고 투쟁하고 있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이 과정에서 현재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현재 교섭 요구와 관련하여

4,320원 최저 임금에서 좀 더 개선된 수준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임금 상승을 요구하고 있으며, - 물론 그나마도 최저 임금에서 고작 20% 인상된 5,180원이다 - 직고용 요구와 관련해서도 지부가 용역업체와 협상하면서, 대학 혹은 대학병원의 책임을 묻는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집단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노동자들은 투쟁의 과정을 통해 투쟁의 방향이 정확히 원청, 즉 대학 혹은 대학병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아가고 있다. 또한 현재 제기하고 있는 상식적인 요구조차도 노동자들의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라고 최저 임금만 받으라는 법 있나, 우리를 진짜 사 용하고 있는 대학이 이 문제에 책임을 져라!

점점 커지고 있는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투쟁, 단결투쟁으로 반드시 승리하자!!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포기는 없다!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투쟁의 계기를 만들자!

울산에서 박준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2차 투쟁은 울산과 아산공장의 파업 및 잔업거부 등의 잠정중단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원인은 현대차 자본의 징계와 경비대와 관리자를 동원한 폭력적인 탄압으로 현장에서 라인을 멈추게 하는 파업이 어려워졌고 해고와 정직을 면한 조합원들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는 울산의 지도부의 조합비 관련 비리와 이로 인한 사퇴 및 지도부 공백도 한 몫 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침출근투쟁과 울산 전역 1인 시위, 업체별 모임을 조직하며 당장 현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과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무차별 징계와 '은밀한' 유혹

3월 10일에 열린 5주체 회의(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지회)에서 금속노조는 '교섭국면을 열어야 평화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울산 지회 정상화도 가능하다' 고 주장했고, 현대차지부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지부) 임단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며, '울산 비정규직 지회가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울산 비대위가 선거 때문에 안 된다면 나머지 4주체 회의라도 해서 교섭을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5주체 회의 이후 열린 4주체(금속노조와 3개 비정규직 지회)가 회의를 열어 3월 17일까지 울산 비대위가 울산 비정규직지회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고 이를 지원한다는 것과 3월말경 3개 지회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교섭과 투쟁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는 탄압국면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는 것보다는 울산 비지회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섭을 통해서 평화국면을 열거나 4대 의제 관련 교섭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미 울산과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징계는 더 이상 교섭을 통해서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진전을 이루어낼 수 없으며, 투쟁하지 않으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당장 조합 활동을 위한 공장 출입 문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탄압에 대한 항의와 투쟁 없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조직력 회복과 투쟁조직화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5주체 회의는 이런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이 끝을 맺었고, 결국 비정규직 동지들과 정규직 활동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흔들리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현대차 자본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기반을 무너트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울산 공장의 경우, 해고자와 정직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출입증을 바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해고자와 정직자 등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섰던 비정규직 동지들과 현장 조합원들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국면은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징계와 고소고발, 손배를 최소화하려는 교섭에 나서는 순간 결국 불법과견 정규직화 투쟁은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현재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에게 불법과견 정규직화 투쟁의 깃발을 움켜쥐고 굳건하게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를 통해서만 1개월, 2개월, 3개월 정직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 현장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시점을 다시 투쟁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해고자들과 정직자들이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는 투쟁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탄압에 대해서 현장의 조합원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필요한 항의와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2차파업을 준비하자!

전북지역위원회 백종성



혼란을 딛고, 다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로 가자!

현대차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소강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울산 지도부의 조합비 유용사건 이후의 혼란도 이에 한 몫 했다. 그러나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은 불법과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아침출근투쟁과 울산 전역 1인 시위, 업체별 모임을 조직하며 당장 현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해고자와 정직자들이 현장의 조합원들과 분리되는 것을 막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전주 공장의 주3일 출근투쟁 대오 역시 항상적으로 150명의 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모든 계급투쟁은 파고를 겪게 마련이며, 우리는 그 파고 한가운데에 있을 뿐이다. 필요한 것은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2차 투쟁을 만들어갈 의지와 계획이다.

징계해고를 박살내는 것은 또 한번의 비정규직철폐 투쟁이어야 한다!

10일의 5주체회의(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지회)에서 금속노조는 '교섭을 열어야 평화기간 설정이 가능하고 울산지회 정상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현대차 지부는 '4월부터 정규직 지부 임단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울산 비정규직지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4주체 회의라도 해서 교섭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공히 탄압국면을 우회하자고 한다. 쟁점이 피해최소화에 맞추어진 4대의제에 교섭을 통한 평화국면을 열자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해고자만 536명에 달하는 울산공장, 징계 13명, 정직 106명, 감봉 150명에 달하는 아산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의 징계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

다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걸고!

가? 더 이상 징계최소화에 맞추어진 교섭을 통해서 비정규직철폐 투쟁의 진전은 불가하며, 투쟁 없이는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도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당장 조합활동을 위한 공장출입 문제, 현장탄압에 대한 투쟁 없이 울산 비정규직지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비정규직철폐 투쟁을 벌여내지 못하는 한, 지금의 침체국면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건 또 한번의 결전을 우회하는 것은, 그 의도가 어떤 것이건 3지회의 투쟁력/조직력을 2010년 7월 22일 이전으로 되돌릴 것이다.



전주지회는 울산과 아산의 징계를 자신에 대한 징계로 여겨야 한다!

울산지회는 새로운 집행부를 만들어가는 과도기에 있고, 아산은 라인을 장악할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는 아직 그만한 조직력을 갖추고 있다. 사측 역시 지금 징계를 하게 된다면 전주지회가 라인을 장악하고 투쟁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늦추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징계에 맞서 연대파업을 결의해 달라는 아산지회의 요청으로 열린 전주지회 쟁대위는 ‘기존의 결정에 따라 징계가 진행되면 파업투쟁을 한다’는 아쉬운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전주지회가 울산과 아산의 징계에 맞서 연대투쟁을 결의하지 못한다면 이후 3지회의 조직력은 모래알로 쌓은 성이 될 것이다. 전주지회는 바로 지금, 연대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울산, 아산이 다 깨지고 나면 전주의 투쟁력은 사측에게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아니게 될 것이다.

지금 투쟁을 불붙이지 못하면 법은 개악된다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에 대해 일부에서는 “법원 판결까

지 나왔는데 교섭해서 회사가 정규직화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투쟁하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정권과 사측의 행태가 보이지 않는가? 파견법을 반드시 개악하겠다고, 제조업 파견을 합법으로 바꿔놓겠다고 발악하는 아우성치는 MB와 MK, 경총과 전경련이 보이지 않는가?

기억하자. 저들은 파견법 개악을 그토록 원해왔다는 것을! 만에 하나 2차 파업이 불발로 돌아가고, 현장이 징계와 해고에 초토화된다면, 저들은 분명 파견법 개악을 밀어부칠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누가 그것을 저지할 수 있겠는가.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박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이경훈 집행부가? 결코 싸움을 미뤄서는 안된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하기 위한 2차 파업으로 가자!



동지의 후원이 미래를 만듭니다!

사회주의는 희망이고 먼 미래의 안개 낀 수식어가 아니라, 자본의 착취와 폭압에 맞서 모든 노동자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은 그저 그런 또 하나의 진보정당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해방세상을 건설하려는 노동자의 무기입니다.

사노위를 후원하십시오.

-농협 352-0136-9090-13 (이경수)-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전면화, 대중화로 당 추진위 건설하자!!

— 2기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정치활동의 상 —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자본주의의 전면적 위기는 자본주의의 심장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이나 후진국 가리지 않고 계급투쟁의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2008년 남한의 대중적 시위가 그러했던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투쟁들은 터져 나오고 있다.

전세계 자본가계급은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위가 이집트에서 마무리되지 않

고 중동 전체를 휘감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처해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을 가져온 시위는 한 계급에서 다른 계급으로 권력의 대체라는 혁명이 아닌 독재의 종식이라는 자본가계급 내부의 권력투쟁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 계급 운동이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독립해있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규모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급의 주도권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 일파의 후위를 뒤따르게 만드는 조건 속에서 필연적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인 자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혁명적인 사회주의 정당 운동의 부재는 노동계급 운동의 가장 큰 약점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자본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대자본의 이윤은 급속히 증가하는 있는 반면 노동계급 삶의 질은 지속적인 하강을 겪고 있고 최저임

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정당이라는 열망을 안고 출발한 진보정당 운동은 벌써 자본가들의 이중대로 전략해가고 있다. 선거뿐만 아니라 노동자 투쟁에서도 노골적으로 자본가 분파의 지지부대로 전략했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결정적인 순간에 파괴하는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

진보정당의 이러한 행태는 올해 재보궐 선거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보다 노골화되어 나타날 것이다. 의회와 투표권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유일무이한 무기인 양 포장될 것이고, 당면 투쟁은

공공연하게 ‘중재’란 이름으로 해체될 것이다.

자본의 전면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사회주의 정치운동의 부재 속에서 의회주의는 별다른 저항 없이 독버섯처럼 자라났고, 노동조합 운동은 노동조건을 방어하지도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 의회주의와 노동조합주의에 완전한 포로가 되어 있는 노동자 운동을 해방시키고, 노동자 운동이 사회주의를 향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은 현 정세가 사회주의자들에게 부과하는 객관적인 과제

라 볼 수 있다.

특히 사노위의 동지들이 노동조합이나 현장조직 뒤로 숨지 않고 전면전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당면한 당 추진위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일관되고 대중적으로 벌여나갈 수 없는 조직이 당을 추진해갈 수는 없다. 사노위 서울지역위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확립을 통해 5월 당 추진위로 힘차게 전진하는 데 복무할 것이다.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사노위 서울 실천단 활동보고 -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작년 7월22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판결 이후,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 자본의 후안무치한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에 맞서, 3지회는 지난 1차파업 기간 동안 25일간의 공장점거파업을 비

롯해,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여왔다. 시트사업부 동성기업의 업체폐업 공고에 맞서 수세적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 전체의 사활적인 요구로 분명히 내세웠다. 이 투쟁이 단일사업장을 넘어 정권과 자본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이 극에 달한 가운데 1차 파업투쟁은 안으로는 정규직 지부의 농성 해제 압박과, 밖으로는 야4당의 중재안 관철을 통해, 더 확대되어야 할 투쟁이 오히려 꺾이고 말았다.

그래서 재파업을 앞둔 우리들에게 과제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절박했다. 다시금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를 거머 쥐고, 이러저러한 중재안이나 정부의 협박에 흔들리지 않고, 아래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대중투쟁을 전국화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필요했다.

사노위실천단은 비록 험난한 조건임에도 2차 파업을 반드시 정규직화 쟁취로 이끌겠다는 결의로 다시 일어난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각 지역에서 적극

지지 엄호하기 위해 구성된 투쟁 선동대이다. 생산현장에 대한 물리적, 직접적인 타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의 양재동 상경투쟁은 사실상 2차 파업의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사노위 서울실천단은 4박5일 상경투쟁을 비롯해, 서울지역에서 2차 파업투쟁의 정당성과 전국총파업을 호소하기 위한 활동을 지난 3주간 집중적으로

전개해왔다.

짙막하게나마 지면을 통해 <현대차 비정규 투쟁승리를 위한 사노위 서울실천단>의 투쟁경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위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확립을 통해 5월 당 추진위로 힘차게 전진하는 데 복무할 것이다.

<2월 11일> 이집트 대사관 앞

사노위 서울 실천단의 공식 첫일정.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고, 국제적인 연대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이집트 대사관 앞 집회에 참가하였다. 전세계 노동자 계급은 하나다. 이라크 혁명이 노동자 계급의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2월 12일> 3지회 집단상경투쟁 (양재동 추어탕집 앞)

2월 10일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대법판결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 물론, 불법을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 않고 폭력적인 노조탄압과 조합원 징계, 해고에 열을 올리는 현대차 자본의 태도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농성해제 이후, 사측의 광폭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동지들은 다시금 투쟁으로 정규직화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결의를 양재동 본사 앞에서 힘차게 다졌다.



<2월 15일> 현대차 고공농성 집회 홍익대 투쟁승리 총력결의대회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집단해고에 맞서 투쟁한 지 어느덧 40일이 지났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사장 홍대가 고용 보장하라는 요구는 자본가들 빼고 모두가 동의하는 상식적 요구이다.

간접고용이라는 이중착취제도의 확산을 통해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나락으로 빠트리려고 한다. 하기에, 비정규직 철폐를 염원하는 홍익대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 해고없는 세상'에서 살기 원한다!



〈2월 16일〉현대차 고공농성장 촛불문화제

사노위 주관의 촛불문화제였다. 많은 서울회원들이 함께 하였다. 문화제 후 광고탑 아래로 다가가 고공농성을 진행중인 동지들에게 힘을 분주기 위한 합성! 당시 고공농성중이던 동지들의 말에 의하면 촛불 때문이지 몰라도 착시 현상때문에 수백의 동지들이 응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다. 하긴 정몽구가 원청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모든 하청고용 노동자가 원청 정규직화 될때까지 사노위 동지들은 1인당 100인 이상이고, 사회주의 사회를 위해서라면 1인당 1000인 이상이 되기 위한 각오를 다진다.



〈2월 18일, 24일, 3월 8일〉기아 소하리공장 출근선전전

사노위 서울실천단은 경기실천단 동지들과 함께 기아 소하리공장에서 공동으로 출근선전전을 진행했다. 사노위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과업특보를 현장의 동지들에게 배포하면서 이렇게 호소했다. “현차 재과업투쟁을 전국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는 첫걸음으로 역사에 기록하자!” 출투후에 동지들과 함께 하는 아침은 꿀맛이다!



〈2월 22일〉 여의도 공무원 해복투 집회

서울 곳곳에는 농성장들이 즐비하다. 오죽하면, 세계최초로 농성인 대회를 치루자는 농담도 나온다. 법으로 보장된 노조활동도 인정받지 못하여 해고되고, 이를 항의하며 농성하면 천막까지 걷어간다. 이는 단순히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자유는 보장되는 법이다. 사노위 학생동지들의 문선에 활력을 얻고 더욱 힘찬 투쟁을 결의하며 〈원직복직〉이라는 네글자를 촛불들을 모아 썬본다. 단결하자!



〈2월 23일〉 GM대우 출근 선전전

오늘은 멀리 부평 GM대우 생산공장까지 가서 사노위 인천 동지들과 함께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GM대우에도 다시금 힘찬 투쟁의 함성이 울려 퍼지기를 바라며,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GM대우 동지들이현차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램으로 갖는다.



〈2월 23일〉 발레오공조, 재능 공동집회

자본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인수합병, 자본이동에 따른 정리해고, 특수공용이라는 형태로 고용하여 흡혈귀처럼 빨아 먹는다. 그런데, 머라나 개인사업자라고? 노동자 계급의 연대와 단결만큼 자본가 계급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없다. 더욱 굳세게 연대하고, 더욱 강하게 단결하자.



〈2월 24일〉 사회주의자 재판 기자회견, 공판 / 재능, 발레오공조 공동집회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대변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과 함께 해온 한 사람의 사회주의자로서의 사노위 회원 동지들은 오늘 자본가 계급의 도마위에 섰다. 사회주의자들의 탄압은 현 자본주의를 갈아 엎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할 노동자 계급의 전진을 가로막아서기 위함이다.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주의자들의 투쟁은 자본가 계급과 국가라는 단일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전진하여야 한다. 더욱 많은 노동자 투사들이 사회주의자 재판과 같은 투쟁에 함께 하여야 한다. 저녁에 시청 재능 농성장 앞에서 진행되었던 재능, 발레오 공동집회는 고단함을 참고 달려온 정원형 동지의 속 시원한 발언이 함께 하였다.





〈2월 24일〉 사노위 전국동시다발 1인 시위

사노위 서울실천단은 서울역, 방배, 영등포 등 서울지역 5개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에서 동시다발 1인시위를 전개했다.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충남, 대전, 전북 등 각 지역에서도 사노위실천단은 정몽구의 불법행위를 폭로하고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전국적으로 알려내고자 1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불법과견 근절! 사내하청 정규직화! 현대차는 대법판결 이행하라!”

〈2월 25일〉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 상경투쟁 당일 양재동 본사앞 출근 투쟁

오늘부터 상경투쟁이다. 울산 동지들이 도착하기에는 너무도 이른 시간, 추위를 무릅쓰고 시노위 동지들이 우선 나선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하라!”



〈2월 26일〉 3지회 파업투쟁 결의대회

업체사장들은 ‘상경투쟁하면 징계하겠다’ 며 대놓고 협박했지만, 400명이 넘는 대오가 함께 모여 사측의 온갖 탄압을 뚫고 반드시 정규직화 쟁취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기억하자! 4박5일 상경투쟁 이후, 울산과 아산에서는 지금 수백 명의 징계해고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 사측의 빗발치듯 쏟아지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다시금 현대차 자본과의 전면전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2차 파업의 활로는 그냥 절로 열리지 않을 것이다.



〈2월 28일〉 현대본사 아침출투, 발레오공조와 함께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



추진위 건설 경로와 무기로서의 강령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이형로



이것은 혁명조직이 아니더라도 당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이다. 그런데 혁명조직에서의 독자적인 정치투쟁의 가능성은 단순히 조직원의 숫자와 대중에 대한 영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투쟁은 부르주아 국가권력을 타도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강고한 혁명 강령과 그 강령에 근거해 활동하는 당원들의 실천력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활동의 성과는 계급의식의 성장과 계급투쟁의 방향을 혁명적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의 공헌도로 판단해야 한다. 즉, 혁명 강령에 입각해 독자적인 정치투쟁을 수행하는 조직이 혁명정당인 것이다.

1. 당 추진위 건설의 실질적 조건

작년 5월 출범한 사노위는, 사회주의 운동과 계급투쟁의 상황, 그리고 사노위 구성원들의 객관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공동실천 단계-당 추진위-당 건설이라는 경로를 상징하고, 본격적인 당 건설투쟁에 돌입했다. 사노위는 출범 당시 당 추진위 전환을 위해서는 1)강령, 전술, 조직의 통일 2)선진

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권위확보를 조건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이것은 공동 실천위 이전단계의 설정이다. 10개월의 공동실천 과정에서 드러난 이러저러한 문제점과 한계에 직면한 지금에 와서는 조건과 현실이 달라져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당 추진위 전환조건과 경로를 밝혀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하는 당 추진위 건설의 실질적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전략 전술 모든 면에서 부르주아 국가권력에 맞서 독자적인 정치투쟁이 가능한 조직이다.

둘째, 혁명적 강령, 규약이 확립된 조직이어야 한다. 혁명 강령 없는 혁명조직은 존재할 수 없으며, 혁명당과 혁명 강령은 계급의식의 정치적 표현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혁명투쟁에 필수불가결하다. 노동자들이 일상적 투쟁의 과정에서 얻게 된 노동자의식은 혁명적으로 진전될 수도

있지만, 투쟁의 시기가 지나면 쉽게 깨지고 일시적이며 결국 소멸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에게는 계급의 모든 역사적·이론적인 성과들을 온전히 담아내는 강령을 가진 조직인, 혁명 정당이 필요하다. 이 때 당은 투쟁하는 노동자 계급과 조직적으로 함께해야만 혁명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항상 노동자 계급투쟁에 복무해야 한다. 또한 계급의식의 발전과 계급투쟁에 복무하기 위해서는 혁명 강령이 실천에서 무기로 작용해야 하며 그 무기가 다양한 전술로 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선진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권위 확보’라는 것 역시 혁명 강령과 규약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전술적 개입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반대로 선진노동자들에 대한 권위 확보가 당을 만드는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전국적인 조직망과 활동

근거를 갖춘 조직이어야 하며, 모든 당원이 활동의 근간에서 직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이 가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직접적인 사회주의 정치활동은 노조나 현장조직, 노동단체를 통해서 배후 활동을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혁명정당을 건설하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신이 속해있는 노동단체, 활동가조직, 현장조직과 혁명정당과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하고, 단절이 필요하면 과감히 끊어내고, 전환이 필요하면 과감히 혁명정당의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과감히 탈퇴하여 당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 현장분회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당의 강령에 입각하여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는 단위와 조직을 의미한다. 당의 강령에 입각하지 않은 활동과 그 조직들은 사회주의 현장분회라 할 수 없으며, 따

라서 현장분회의 건설과 활동은 당의 강령과 전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넷째, 정치의 중앙인 중핵과 활동의 근간인 현장분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혁명조직의 기본인 민주적 집중제의 원칙이 관철되는 조직이어야 한다. 정치의 중앙과 기본 활동단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핵과 현장분회의 정치의식과 실천 활동이 최대한 균질화되어야 한다. 즉 현장분회가 각각의 현장에서 당의 대부분의 기능(선전, 선동, 조직, 투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민주적 집중제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1) 조직 내부의 혁명의식이 완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직원 전체의 정치의식이 최대한 균질화되어야 한다. 균질성이 높은 조직일수록 획일화되지 않은 조직으로서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사상투쟁을 벌이는데 있어 가장 광범위하고 제한 없는 토론을 보장한다.

2) 이와 동시에 조직의 강력한 결집력과 행동일치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다수가 채택한 결정에 대해 전 조직원과 조직의 모든 체계는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의 세력을 혁명적으로 재조직화하고, 전투적 노동자들의 자기조직화의 과제를 제





시하는 것의 중심에 서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혁명정당은 사민주의 정당들처럼 대중에게 인기를 얻고 대중들을 투쟁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 강령에 입각해 계급과 계급의식을 바꾸어 내는 것이 임무이다. 계급과 계급의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조직하고 자신들의 연대와 의식으로만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과제를 강력하게 제시하고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분열되어 있고 혁명정당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회주의자들에게 혁명정당의 건설 경로를 제시하고, 혁명 강령을 제안하고, 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명료한 기준을 제시하여, 혁명적 사회주의자와 전투적 노동자계급의 자기조직화 과업의 중심에 서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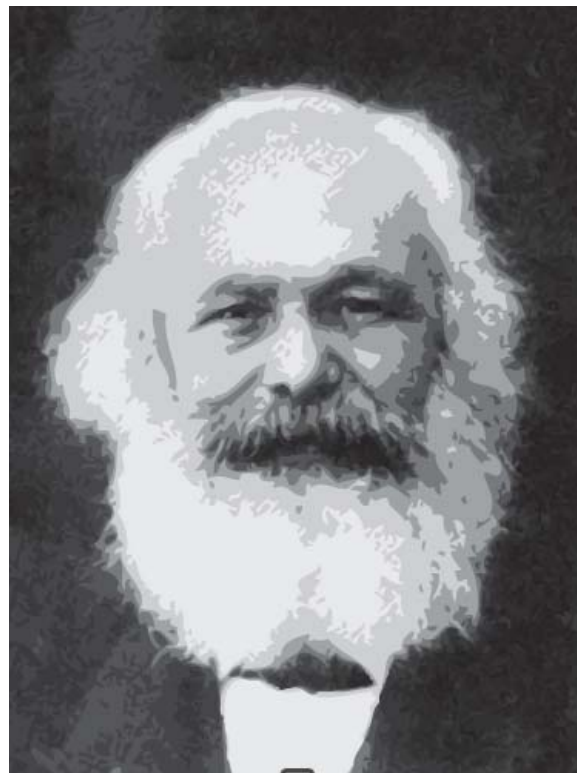
그런데 현재의 사노위의 상태와 조건은 어떠한가?
형식적으로는 이미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었고, 독자적 정치투쟁이 가능하며, 혁명적 사회주의 진영 재편의 중심에 서있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 이미 위의 다섯 가지 요건 가운데 첫째, 셋째, 다섯째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노위가 아직 혁명적 강령과 강령에 입각한 실천을 조직할 수 있는 당적 조직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앞서 세 가지 요건은 강령과 당적 조직구조가 갖

춰지지 않는다면, 정치 없는 정치투쟁, 실천 없는 전국적 조직, 실제 없는 혁명적 재편의 중심이 되고 만다.

따라서 사노위의 남은 기간 혁명 강령 건설과 당적 조직구조를 갖추는데 사활을 걸어야 하며, 이것만이 사노위의 공동실천단계를 실패로 만들지 않고, 조직의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내 당 추진위를 힘 있게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2. 당과 강령

당의 성격은 당의 이름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에서 내걸은 강령과 실천력이 규정해 준다. 우리가 만들려는 강령은 한마디로 사회주의 혁명 강령이다. 우리의 강령은 역사와 생산과 권력의 주체인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시키는 강령이며, 그 원칙에서 벗어난 어떠한 반자본주의의 강령도, 반신자유주의의 강령도, 반제국주의의 강령도 허용할 수 없다. 이 강령은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착취체제인 자본





주의체제의 본질과 현 쇠퇴시기의 본질을 밝혀내고,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명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공산주의 사회로의 이행 등 혁명의 전 과정에 대한 혁명적 원칙을 정립하고, 노동자계급에게 사회주의 혁명, 세계혁명의 전망을 제시하여, 현실의 계급투쟁에서 자본가계급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강령이다.

지난 1월 사노위 2차 총회에서 3개의 강령 초초안이 제출되었고, 현재는 본격적으로 조직 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노위는 출범 시에 강령이전의 낮은 단계로서 11개 정치원칙을 기준으로 삼아, 사회주의 혁명당 건설과 거리가 먼 사민주의, 스탈린주의, 민족주의자들은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다수 경향들

을 포괄하면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정치노선과 씨클들이 참여(일부 씨클 불참)했고, 벌써 10개월을 경과하며 공동실천 과정을 마감해가고 있다. 이것은 사노위가 씨클 구도에서는 다수를 포함하지 못했지만, 정치경향 속에서는 가장 풍부한 다수의 경향을 참여시키며, 당 건설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건설하고 채택할 강령은 조직원 숫자의 다수가 선호하는 강령이 아닌, 정치적 경향의 다수를 포괄하고 일치시키는 강령이어야 한다. 이런 원칙만이 진정한 강령 투쟁과 강령건설을 보장할 것이며, 이 과정을 거쳐 건설된 강령이 당 추진위에서 채택되어야 한다. 강력한 정치조직은 통합지도부의 건설이 아닌 강령적 통일, 강령적 행동일치에 있다. 강령의 수준을 낮추어 통일을 꾀하는 것은 혁명적 전통과 현실의 혁



명적 사회주의운동을 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강령은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 것이지, 강령의 세세한 문구 하나하나를 계급투쟁의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건설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실천을 강제하는 것은 강령의 명료한 원칙과 그에 입각한 풍부한 전술과 지침이지, 강령의 친절함과 좋은 글귀가 아니기 때문이다.

3. 당 추진위 건설을 향한 중대한 결정과 2가지 과제

사노위는 이제 남은 3개월 안에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며, 동시에 당 건설 경로에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과업을 안게 되었다.

첫째, 단일 강령이 만들어지고 강령이 승인된다하더라도, 조직원들의 강령적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강령도 당 건설도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강령의 승인은 강령의 내용에 대한 동의만이 아니라, 강령을 실천적으로 결의하고 강령에 입각해 활동할 진정한 당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강령과 규약을 승인하는 순간, 현재의 사노위보다 2~3배 이상의 정치의식 상승과 활동력이 필요할 것이며, 강령적 실천과 규약 준수가 조직의 모든 규율을 담보해줄 것이다. 당 추진위는 이렇게 강력한 강령적 실천이 담보된다면 즉각 결성되어

야 한다. 이것은 단일 강령이 아닐 경우, 각각의 강령 안중에서 실천이 담보되는 강령만이 당 추진위의 강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둘째, 강령제출과 함께 당 추진위 건설을 외부의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에게 공개적이고 공세



적으로 제안하여, 당 추진위 건설을 실물화시키고 기정사실화해야 한다. 이것은 강령 초초안 단계를 넘어 강령초안이 제출되는 시점에서 모든 강령초안에 제한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강령초안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단일안의 경우에도 외부확장을 위해 필요하고, 복수안일 경우에도 외부확장이 당 추진위 건설의 척도라서 사활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 추진위의 상과 경로는 분명해졌다. 단일 강령 안 건설, 강령의 실천적 승인과 조직의 질적 상승, 강령을 통한 외부로의 확장, 당 추진위의 건설이라는 역사적 과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물론 복수의 강령 안이 나와서 사노위 모든 성원이 당 추진위로 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당 추진위 건설의 제약이 될 수는 없다. 시간이 필요한 동지들에게는 당 추진위 참여를 준비하는 예비조직을 상정할 수 있다.

혁명정당과 혁명강령이 필요한 동지들! 강력한 실천력을 담보한 혁명적 강령을 무기로 삼아, 당 추진위 건설의 불길을 끝없이 확장시켜, 이 땅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과 가장 전투적 노동자계급이 동지들과 함께 혁명정당에 녹아들어가게 만들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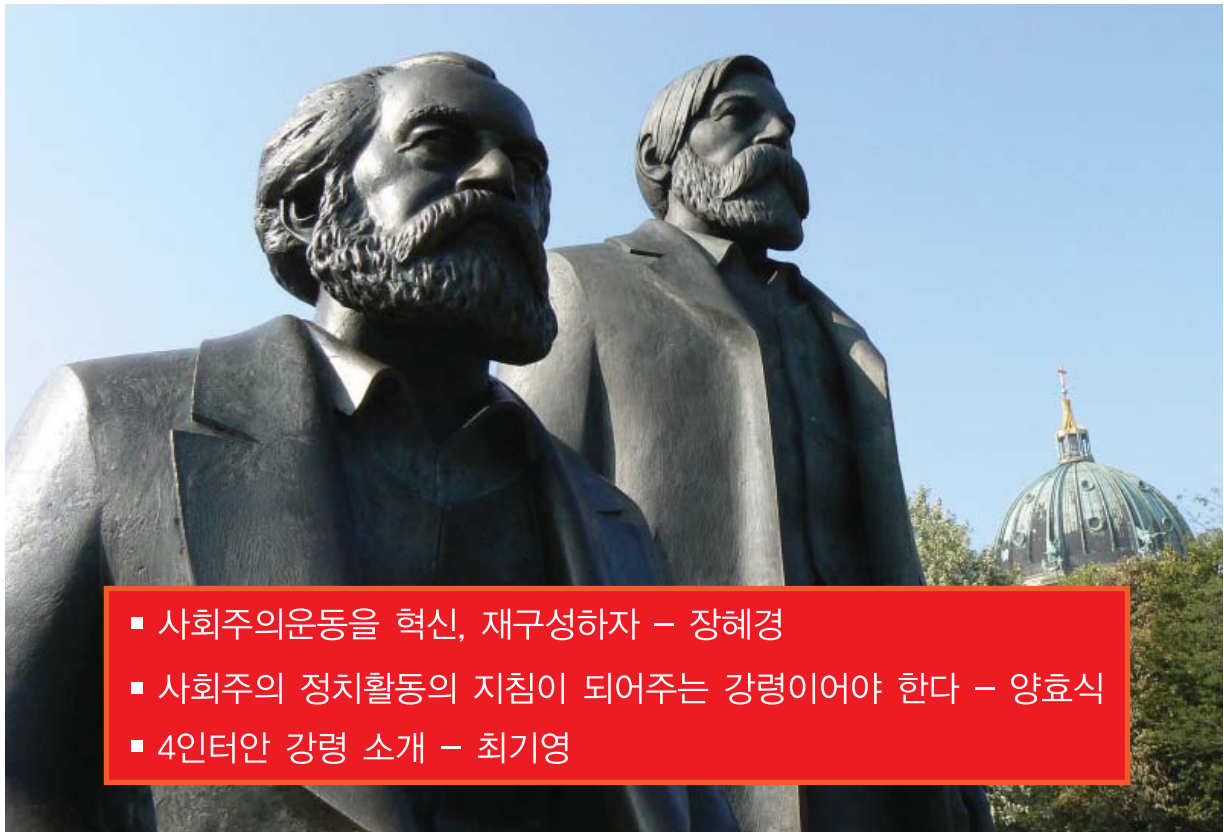
기획연재

사회주의 강령 토론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은 강령을 중심으로 강령, 조직, 전술적 통일성을 구현해내는 부단한 투쟁의 과정이다. 이 투쟁의 과정은 계급투쟁 및 혁명운동역사에 대한 이해와 최신의 성과까지 포함하는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현실적 과제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며, 강령에 대한 태도와 이해, 그리고 나아가 정치활동의 내용과 방식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으로 드러난다.

사노위는 강령, 조직, 전술적 통일을 통해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추진위 건설로 나아갈 임무를 가지고 출범했다. 추진위 전환을 앞두고 사노위는 남구현, 장혜경, 신현원의 3인 안과 오세철, 양효식, 김강산, 이형로, 백종성의 5인안, 그리고 최기영, 이원기의 2인안, 이렇게 총 3개의 초초안(각각의 안들은 사노위 홈페이지 swc.jinbo.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을 제출하고 있으며, 각 안들을 두고 치열한 내부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서로 다른 역사와 경향,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존재하던 사회주의 씨클들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노동자 계급의 미래를 대변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해야 할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초초안을 제출한 동지들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안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싣고 있다. 다음 호부터는 강령토론 과정에서 제출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논쟁을 다루고자 한다. 사회주의 강령의 토론이 사노위의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사회주의자들의 공동의 관심사가 되기를 희망한다.



- 사회주의운동을 혁신, 재구성하자 – 장혜경
-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이 되어주는 강령이어야 한다 – 양효식
- 4인터안 강령 소개 – 최기영



사회주의운동을 혁신, 재구성하자!

강령기초위원 장혜경

지금 사노위는 건설할 당의 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토론을 전개하고 있다. 사노위가 민노당이나 진보신당같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려 하는만큼, 강령안 마련을 위해 제출된 입장들은 모두 현시기 한국사회 변혁은 사회주의혁명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을 이룰 핵심주체는 노동자계급이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부분에서 쟁점이 존재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소련을 위시한 역사적 사회주의국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다. 국제 사회주의운동 안에서 오랜 쟁점이었던 이 주제가 사노위 내에서도 논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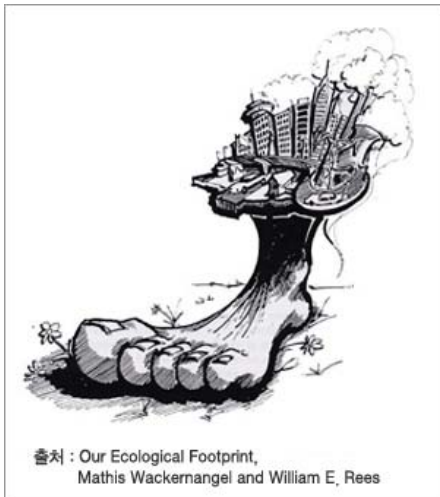
그러나 지금 사노위 내의 논쟁지형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역사적 사회주의국가의 ‘실패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과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이며, ‘어떤 사회

주의운동을 전개할 것이냐’를 정립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소련사회 성격 규정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현 사노위 내 논쟁지형은 역사적 사회주의운동의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부터 사회주의운동을 혁신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까지 논의가 확장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제출된 강령초초안들은 소련에서 사회주의 건설 실험이 실패한 조건으로 유립혁명의 실패로 인한 러시아 혁명의 고립, 당시 후진국이었던 러시아의 낮은 생산력에다 내전으로 인한 생산력의 대대

적 파괴, 그리고 내전 과정에서 선진적인 노동자계급의 역량이 파괴된 것을 모두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스탈린주의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같다.

그러나 러시아 혁명의 어려웠던 조건의 문제와 스탈린주의 반혁명만을 얘기하는 것은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실험이 왜 필요했는가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소련에서 전개된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문제점을 뽑아내고, 노동자권력 수립 이후에 닥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우리는 대중(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된 사회주의 건설이 아니라 당의 지도 아래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주의 건설노선, 즉 ‘당과 국가가 융합된 국가사회주의 건설 노선’이 소련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를 낳은 중요 원인이라 본다. 또 생산력 발전을 사회주의 건설의 관건적 요소로 파악하는 ‘생산력주의’ 역시 문제였다고 판단한다.

먼저 전자의 문제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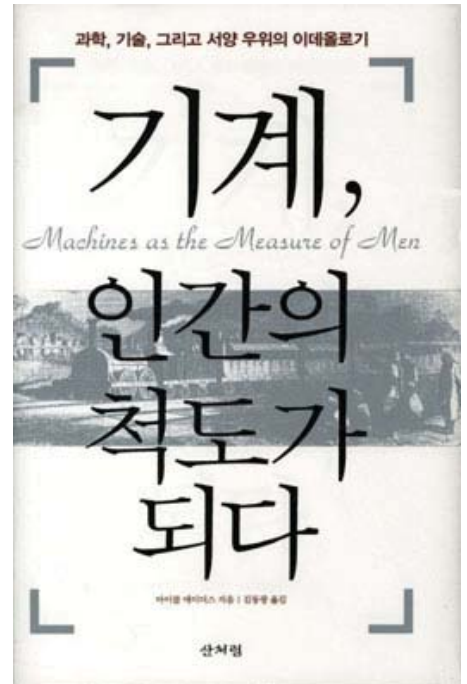
소련은 10월 혁명을 통해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고 자본가계급의 지배를 철폐했다. 그리고 혁명적인 여성해방 조치를 취하여 여성해방을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 그러나 당-국가 관료층이 새로

운 지배계급으로 등장하면서, 노동자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 노동자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인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공산당 독재로 변질되었다. 노동자민주의 정치역량(자치역량)의 성장에 따라 당과 국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어가는 커녕, 오히려 당과 국가의 힘이 더욱 거대해져서 당과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인민의 일상생활과 예술활동까지 규정하고 지배하는 극단적인 국가주의 체제를 낳았다.

초기 혁명적인 여성해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자가 주체가 된 여성운동이 부재하고, 뿌리깊은 가부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여성들은 해방의 주체라기 보다는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당하는 객체로 머물렀다.

두 번째로 생산력주의 문제를 살펴보자. 생산력의 비약적 발전을 통해 사회주의 건설을 이뤄나간다는 노선은 낮은 생산력이라는 소련의 경제적 조건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보다 높은 생산력을 향한 급속한 경제발전전략은 노동자계급을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생산력 향상을 위한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이는 정치영역에서 당독재-국가관료층의 지배계급화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리면서 진행되었다. 생산력주의는 동시에 경제발전과정

에서 자연을 대거 파괴시켰다. 자본주의가 철폐되더라도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태적 관점을 갖지 못한다면, 자연 파괴는 피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



한국에서 사회주의정당운동을 본격화하는 지금, 우리는 소련 실패를 거울삼아 사회주의운동을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 그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국제주의'에 바탕한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소련 혁명의 실패는 노동자국제주의, 또는 전세계적 차원의 사회주의혁명만이 일국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을 유지시키고 강화시키는데 관건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둘째,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이 혁명의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니라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노동자계급의 정치 역량이 강화되어 나가지 않는다면, 없어진 자본가계급 대신 당-국가관료층이라는 새로운 지배계급이 등장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즉 노동자국가를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국가와 인민의 갈등은 충분히 생겨날 수 있으며, 이 갈등과 대립이 노동자국가라는 이름으로 간단하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갈등과 대립은 국가의 인민으로부터의 자립화와 관료층의 지배계급화라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의 영역과 역할이 축소되는 방향 아래 해소되어 나가야 한다.

셋째, 사회주의정당은 인민 위에 군

림하는 당이 아니라 대중의 정치주체화를 강화하는 것이 자신의 주 역할로 하는 당이어야 한다. 이는 노동자권력이 수립되기 전이나 수립된 이후나 마찬가지다. 당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한다는 이름 아래 노동자계급을 대신하는 대리주의에 빠져서는 안된다. 당은 과학적 세계관으로 무장한 '이성의 화신'이 아니라, 언제나 대중과 호흡하면서 자신의 오류를 언제든지 정정하고 혁신할 수 있는 당이어야 한다.

네 번째는 소련 붕괴를 근거로 계획경제는 불가능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지배세력의 논리에 맞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주의 경제의 상을 제출하면서 투쟁하는 것이다. 최근 대공황으로 극명히 드러난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노동자권력에 의해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노동자민중이 경제의 주인이 되는 민주적 계획경제의 수립이라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섯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달리 자연과 공생하는 경제를 건설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은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보는 관점, 생

산력주의적 관점과 맞서 싸워나가는 운동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분이며, 자연과 인간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인식하며, 이 관점 아래 실천하는 사회주의 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억압을 비롯한 모든 억압과 차별, 배제를 극복하는 인간해방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억압자들이 자신을 스스로 해방운동의 주체로 성장,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운동이 노동자계급의 해방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억압에 맞서 싸우고, 이 투쟁을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과 결합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것들이 사회주의운동을 혁신하고 재구성해야 할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 혁신과 재구성은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잡은 후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펼쳐나가야 할 사회주의운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당을 만들고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이 되어주는 강령이어야 한다!

강령기초위원 양효식



지금 우리의 강령 토론은 우리가 어떤 당을 만들고 어떤 정치활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무장봉기 같은, ‘사회주의로 가는 혁명적 길’을 명확히 하는 혁명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들을 애매하게 얼버무리고 ‘사회주의로 가는 평화적, 의회적 길’이라는 개량주의에 뒷문을 열어놓고 동요하는 무원칙한 당을 건설할 것인가?



또한 노동조합운동에서, 각종 활동가 조직이나 부문운동에서 당원들이 당 강령에 입각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하고 이 운동들을 계급투쟁적인 공동전선으로 바로 세워내기 위해 지도력을 다투는 당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원칙 따로, 현실 운동 따로’ 함으로써 당원들의 실제 활동은 노조운동이나 활동가조직, 부문운동 수준으로 하향화하여 당 운동이 실종되고 대중운동, 부문운동도 투쟁을 회피하는 개량주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전락되도록 허용하는 당을 만들 것인가?

현재 제출된 안 가운데 3인안은 노동자계급 권력 장악을 위한 전략전술 제시를 회피함으로써 노조를 비롯한 대중운동과 각종 활동가조직, 부문운동들에서 당원들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수행

할 지침이 전혀 되지 못하는 강령안이다. 이런 강령안에 바탕을 두는 당이라면 전위당이 아니라 썸부니주의 당, 즉 노조, 활동가조직, 노동단체, 부문운동들의 총합에 불과한 당, 필연적으로 추수주의적이고 연방주의적인 당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강령은 사회주의혁명 강령이다. 그러나 당 강령에서 형식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언급하고 있어도 실제로 사회주의혁명과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 전술의 형태로 강령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사회주의혁명’은 공문구가 된다. 강령은 행동의 지침이 못되며 당사의 액자에나 걸어놓는 죽은 문자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당의 활동이 ‘강령 따로, 당면 투쟁 따로’ 식으

로 되어버리고 이름만 혁명정당일 뿐 사실상 개량주의 정당과 다를 바 없는 당으로 전락한다.

그래서 반드시 혁명정당의 강령이라면 당면 투쟁과 노동조합에서, 현장과 지역에서, 각종 활동가조직과 부문운동 속에서, 다양한 공동투쟁 전선에서 당원들이 수행할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사노위를 비롯한 남한 사회주의 운동은 노동자 투쟁에 적극 연대,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중투쟁에 적극 결합하고 연대하는 것은 사회주의운동에 기본적인 임무일 뿐 아니라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정당 건설을 자임하는 세력으로서 사노위는 이러한 지원과 연대를 넘어서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사회주의운동 본연의 과제로까지 아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과연 연대와 지원 이상으로 '사회주의 정치

활동'을 펼치고 있는가?

사노위 출범 과정에서 수립한 11개 사노위 정치원칙 가운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적인 원칙이 있다.

- 현장, 지역, 전국 수준의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
- 강령(이행요구 포함)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

사노위는 이 원칙을 현재 사노위 조직활동 속에서 실현시키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다. 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대 활동이 왕성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회주의 정치활동 전개'와 '강령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라는 원칙을 실천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인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단순한 투쟁 결합 및 지원 연대가 아니라 대중 속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어야 한다고 할 때, 즉 투쟁의 목표와 방향과 요구와 전술과 조직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계급투쟁에 지도력을 공급하고,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노동자권력을 향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임무에 대한 인식으로까지 계급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선전과 선동을 수행하는, 그러한 사회주의 정치활동이어야 한다고 할 때, 이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나침반과 지침서가 되어야 할 강령, 전술을 정립해야 할 과제는 현재 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주의운동에 너무도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다.

사노위의 전 조직적인 당 강령 토론

이 단순히 사회주의의 일반 원칙과 궁극 목표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진행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만일 이러한 추상 수준에서 맴돌 뿐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 정립이라는 구체적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지 못하고 만다면 강령 논의는 결코 정치적 · 실천적 통일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며, 당 추진위 건설의 실패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현재 제출된 강령 초초안은 이런 구체적 수준의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확히 말해서 제시하길 회피하고 있다. 이는 사노위 건설 11개 정치원칙에서 강령에 '이행요구 포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행요구강령을 초초안에 담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운동의 궁극 목표와 현실 계급투쟁 사이의 간극을 이어줄 가교로서의 이행요구를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11대 정치원칙 첫머리에 "사회주의 혁명 정당 건설"을 내걸고 있다. 사회주의혁명을 이끌 당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큰 타이틀로 "노동자권력(대체권력) 수립"을 천명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권력장악을 조직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투쟁 과제들(비정규직, 고용, 생활임금, 민주적 제권리 방어 등)과 사노위가 내걸고 있는 정치적 목표인 노동자권력/사회주의혁명 사이에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곧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위한 지침을 정립하는 것이다. 만약 '정치적 목표 따로, 당면 투쟁 따로'라면 정치적 목표는 공문구로, 당면 투쟁에 대한 방침은 대중 추수주의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또한 노동조합과 각종 활동가조직, 부문운동 속에서 사회주의당원들이 혁명적 사회주의 지도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운동과 조직들을 강령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조, 단체, 부문운동 수준으로 하향화하고 나아가 이 운동과 조직들이 개

량주의가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령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라는 원칙을 이번 강령 토론에서 얼마나 구체화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상’을 정립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 강령적 내용과 무관한 ‘현장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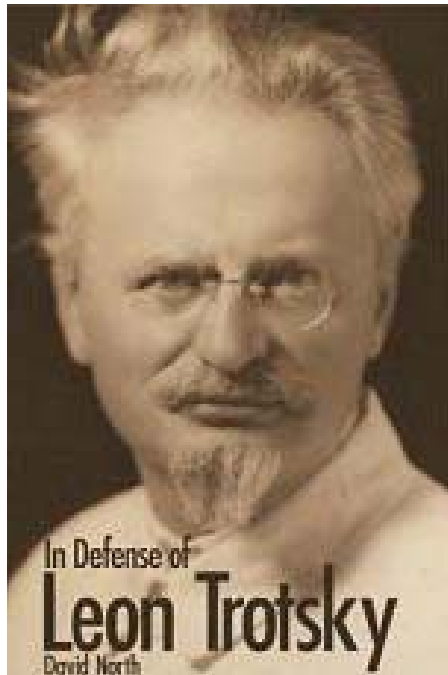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지침 마련을 위해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1. 당면의 비정규직 문제와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인가? 그렇지 않다면 사노위의, 또는 사노위가 건설해야 한다고 하는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비정규직 강령은 무엇인가? 혹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 간에는 아무 관련 없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우리는 비정규직 노조나 관련 노동단체의 정책을 가져다 쓰면 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그리고 이하의 문제들에 대해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즉 정치활동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강령에 입각한 노동자 투쟁 조직화”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한다.)

2. 당면의 실업, 해고 등 고용 문제와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일자리 강령은 무엇인가?

3. 현재 이명박정권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민주적 제권리(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 등)를 방어하는 문제와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민주적 제권리강령은 무엇인가?



4. 여성억압에 맞선 여성해방 문제와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여성해방 강령은 무엇인가?

4-1. 성 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억압/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차별에 맞선 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맞선 투쟁 강령은 무엇인가?

5.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하는 당면의 환경재앙으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환경, 생태 강령은 무엇인가?

6. 현 시기 노조운동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노조운동 강령은 무엇인가? 사회주의혁명정당의 현 시기 노동조합 전략, 전술은 무엇인가?

7. 현장통제에 맞서는 투쟁,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투쟁, 작업 및 생산을 둘러싼 ‘현장권력’을 위한 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현장권력 및 생산통제권 강령은 무엇인가?

8. 당면 경제위기 속에서 파산기업 문제, 재벌 문제, 금융위기로 인한 은행 및 금융사 문제, 위기를 빚자한 구조조정 및 민영화 문제 등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경제위기 강령,



재벌 강령, 민영화/ 국유화 관련 강령은 무엇인가?

9. 당면 전쟁위협 책동에 맞선 투쟁 및 제국주의 전쟁 반대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전쟁/평화 강령은 무엇인가?

10. 구사대 용역, 경찰 폭력에 맞선 투쟁, 노동자의 자위적 무장을 위한 투쟁과 사노위가 말하는 노동자의 권력장악/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사노위의 또는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의 폭력, 무장 강령은 무엇인가?

혁명적 노동자당을 건설하려 하며 노동자 권력장악과 사회주의혁명을 정치적 목표로 하여 당면 노동자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사노위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시급히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사노위의 당 건설투쟁에 대한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각각의 관련 단체나 부문운동들로부터 구할 수 없고 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각각의 답이 하나의 사회주의혁명 강령의 일부로, 노동계급의 권력장악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가 건설할 사회주의 혁명정당이 부문운동 단체들의 총합이 아니라면 말이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총체적인 답변을 이번 전 조직적 강령 토론 과정에서 정확히 정립해야 한다. 적어도 5월 또는 8월 이후 사회주의노동자당(추)의 정치활동이 더 이상 지원연대 활동 수준으로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4인터안 강령 소개

강령실무위원 **최기영**

재개된 반격

반격이 시작되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이후 근 20년간 움츠러들었던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들은 세계 곳곳에서 다시 반격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유럽의 각 나라들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그 반격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반격은 새로운 반격을 부르며 번지고 있다. 의기양양하게 ‘자본의 영구적 승리’를 노래하던 자본가계급은 불과 10여 년 전과는 너무도 다른 노동계급의 태도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 전개에 당황하며 허둥대고 있다.

이 반격을 성공시켜야 한다. 태생적으로, 불평등, 혹사 노동, 실업, 가난과

굶주림, 환경파괴 그리고 전쟁의 원인인 이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고 인류 모두가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새로운 세계를 펼쳐내어야 한다.

당과 강령

반격의 성패는 늘 그러했듯이 지도부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 지도부의 역사와 정세에 대한 과학적 이해, 올바른 정치적 목표, 그리고 그 결단력에 성패가 달려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노동계급과 피억압인민들의 확고한 지지에 달려 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우리는 올바른

강령 수립에 그리고 그에 기초한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에 단호히 나서고 있는 것이다. 당은 강령을 중심으로 한 의지의 결집체이다. 강령은 인류와 노동계급의 오랜 역사적 실천과 그 실천을 통해 추출된 과학적 이론과 교훈의 결정체이며, 의지는 특정 시대 노동계급 중 자본주의 체제를 끝장내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자각하고 결의한 노동계급의 앞선 부위이다. 따라서 당은 역사적 실천의 추상화를 통한 이론과 현재적 의지의 만남으로 결성된다. 그런 점에서 특정 시대 노동계급의 전위는 그 때까지 이어온 역사적 실천의 총화와 그 추상화를 통한 과학적 이론의 정수로부터 작업을 시작한다.

혁명전통의 계승

150여 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승 발전되고 있는 맑스주의는, 노동계급과 인류의 역사적 실천의 정수이며, 따라서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 해석이다. 여타의 계급은 자신의 물질 기반과 맑스주의라는 과학 사이에서 크고 작은 모순을 느끼며, 오직 최후의 피착취계급인 노동계급만이 그 맑스주의라는 과학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일치시킨다. 그러한 점에서 맑스주의는 노동계급의 사상이며, 노동계급은 맑스주의의 담지자가 된다.

맑스주의라는 사회과학의 정수는 실천적 검증을 거치면서, 자본주의 발전기의 맑스와 엥겔스로부터 제국주의 시대의 레닌주의로, 스탈린 정치적 반혁명의 시대를 거치며 레닌주의에서 트로츠키주의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



우리가 제출한 강령에 ‘제4인터내셔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제2인터내셔널의 정치적 파산을 목도하며 레닌 등 맑스주의의 새 계승자들이 수립한 제3인터내셔널은 스탈린주의로 인해 새로운 정치적 파산을 맞았고, 트로츠키와 좌익반대파는 제4인터내셔널을 수립하며 맑스주의의 전통을 발전적으로 계승했다. 그리고 그

제4인터내셔널의 정치적 내용은 파산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옳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4인터내셔널의 정치적 유산 위에서 우리의 작업을 시작하려는 것이다.

혁명전통의 핵심

제4인터내셔널로 계승 발전된 맑스주의의 정치적 유산 위에서 강령 수립 작업, 당 건설 작업을 하겠다는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1917년 10월 혁명을 온전히 계승하고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10월 혁명의 사회 물질적 성과를 계승하고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10월 혁명은 스탈린관료집단에 의해 한편으로 퇴보하면서도, 한편으로 동유럽과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에 기형적 노동

미한다.

노동계급을 오토하는 사상과 정치투쟁

맑스주의라는 노동계급의 과학은 비(非)노동계급 사상 그리고 비과학에 맞선 투쟁을 통해 그 전통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우리의 강령 수립은 바로 그러한 투쟁의 계승이어야 하며, 우리가 제출한 강령은 그러한 점에서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노동자주의, 부르주아 여성주의 등 노동계급을 패배로 이끄는 비과학들에 대한 투쟁 선언이기도 하다.

먼저, 스탈린주의는 제국주의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정치적 공황 상태에 빠진 관료들의 세계관이다. 그들은 제국주의라는 당면한 위협에 질식되어, 노동계급의 장기적 국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안목을 상실하고, 관료 집단의 당면한 일국적 이익만을 도모한다. 이 스탈린주의는 관료집단의 사상을 레닌주의의 계승이라고 참칭하며, 혁명 소련을 정치적으로 퇴행시키고, 중국 스페인 인도네시아 칠레 등 각국의 노동계급과 혁명을 패배로 이끌었다.

둘째, 국가자본주의론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에 의지하여 노동계급과 피억압 인민이 쟁취한 성과 방어를 거부하는 정치적 태도이다. 이 이론은 ‘사적소유가 철폐된 자본주의’라는 비(非)맑스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소련과 동유럽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의 퇴보한 또는 기형적 노동자국가들의 방어를 거부해 왔다. 이 소위 ‘이론’은 대표적으로 카우츠키, 버넘, 섹트먼, 클리프 등으로 이어지며(그리고 다른 한편 서로가 서로를 부정하며), 러시아 혁명 직후, 2차 대전 시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폴란드 자유연대노조, 소련 자본주의 반혁명 등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사안들에서 궁극적으로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반혁명의 편을 들어왔다. 우리는 과거의 성과를 지

자국가를 수립하는 등 노동계급의 진전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자산은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다 탕진되지는 않았다. 우리는 그 사회 물질적 자산을 방어할 것이다.

둘째, 10월 혁명의 이론적 자산을 방어하고 그 정수를 계승하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먼저 스탈린주의 그리고 잡다한 비(非)노동계급 사상에 대한 투쟁을 의

킬 것을 거부하지만 새로운 것을 성취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는 이 국가자본주의론을 또 하나의 반동적 사상이라고 규정한다.

셋째, 노동자주의는 ‘노동자의 지금의 즉자적 인식과 당장의 현실적 이해(임금, 고용 등)’에 노동계급의 대의를 굴종시키는 사상이다. 이 사상은 임금과 고용을 둘러싼 당장의 투쟁(보통 현장투쟁이라고 부르는)에만 매몰되어 혁명적 강령과 그에 기초한 혁명 지도부 수립이라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임무를 방기하게 한다. 이러한 사상으로는 혁명은 꿈도 꿀 수 없다. 자본주의에 신음하는 노동계급은 맑스주의라는 사회적 지향과 만날 때에만 임금 노예에서 벗어나 혁명적 지도계급이 되며, 당은 그 매개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개량 투쟁을 지지 옹호하되, 동시에 이행강령을 제시하며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특히 소련 붕괴 이후, 각종의 잡다한 자본의 사상이나 자본의 포로가 된 사상들이 노동계급에 침투하여 맑스 레닌 트로츠키주의를 공격하며 노동계급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다. 여성주의(페미니즘이라고 일컬어지는)가 그 중 하나이다. 사회 계급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 페미니즘의 대전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의 근원이 되는 계급의 철폐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특히 남성)의 의식에 주로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제기한다. 물질 토대에 대한 개선보다는 그 물질 토대의 산물인 의식에 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계급과 피억압 여성을 오도하며, 때로 남녀 노동계급 사이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한다. 선배 혁명가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그 의식과 제도 관행을 예민하게 비판하고 개선하면서, 동시에 그 물질 토대인 계급 사회 철폐를 위해 나아갈 것이다. 그것은 페미니즘과 구별되는 여성해방운동이다.



소책자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에 대한 간략한 비평

사노위 서울지역위 임천용

기고의 배경

사노위에서는 사회주의를 대중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사회주의 지금 여기에!”라는 소책자를 3월 5일에 발간했고,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하고 있다.

사회주의의 대중적 소개는 보다 엄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만큼 대중의 여론에 부딪혀 싸워야 하고, 그동안 자본가 국가가 사회주의에 대해 행했던 모든 악선동에 정면으로 맞서야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체로 대중의 여론이란 부르주아적 여론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의 대중화는 맑스를 비롯한 혁명가들의 이론적 성과와 국제 혁명투쟁의 고유한 경험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때 가능하다. 사회주의는 과거의 좋은 것들은 취하고 부정적인 것은 버리는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개념을 재구성하고 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독재 등과 같은 “비대중적”인 언어들을 교정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접근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의 회화화를 낳게 된다.

이 소책자는 사회주의를 널리 알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소책자의 1부와 2부만 간략히 살펴볼 것인데, 소책자의 전체 기조는 사회주의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판적, 공상적 사회주의로 후퇴하고 있다. 소책자는 이미 하나의 정신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사소한 교정을 위한 목적은 여기에 있을 수 없다. 단지 독자들이 이 소책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이 글의 주된 관심사다.

사회주의 - 유토피아적 공약인가 아니면 계급투쟁의 연속인가

사회주의 운동이 공상적 사회주의 또는 소부르주아 사회주의와 다른 이유는 노동자, 민중, 그리고 인류전체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난 200여년의 역사만 보더라도 노동자계급의 처참한 상태를 이용하여 봉건적, 부르주아적, 소부르주아 세력들은 자신들의 계급적 처지에 맞는 “사회주의”를 고안하고 노동자들을 동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는 21세기 자본주의하에서도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사회주의의 필연성은 현재적 고통에 대한 묘사로부터가 아니라 현실의 계급투쟁 그 자체에 의해 불가피하다. 더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전 사회체제와는 달리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의 계급투쟁의 불가피성이라는 주요한 특징이 더해진다.



그런데 소책자 1부 “왜 사회주의인가”에서 고통에 대한 묘사는 있지만 계급투쟁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다. 왜 노동자계급이 혁명의 주체 세력인가가 빠져있다. 그 결과 결론은 “... 고통을 끝장낼 것인가? ... 자본주의를 넘어설 것인가?”와 같은 인간 이성의 판단의 문제로 치환되고 있다. 다음 2부는 “사회주의, 바로 이런 사회다”로 넘어가는데, 거기에서는 사회주의의 한가하고 목가적인 풍경이 주를 이룬다. “사회주의는 어떤 사회일까”라는 질문은 그것이 현실의 계급투쟁과 구체적인 연관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이상세계를 갈구하는 하나의 이념으로 전락하고 만다.

사회주의는 목가적인 평화로움 대신에 치열한 계급투쟁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사회주의는 파리코뮌과 러시아 혁명, 그리고 유럽에서의 수많은 패배한 혁명들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국가권력을 놓고서 벌어진 노동계급과 자본가계급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 없이 어떻게 사회주의가 설명될 수 있는가? 사회주의는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의 유물과 자본주의로 회귀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한 가차 없는 폭력과 문화적 설득을 통한 또 하나의 계급투쟁의 시대다. 자본주의의 국제적 연관고리가 심화되면 될수록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는 혁명의 방어뿐만 아니라 혁명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보다 고도한 투쟁 과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소책

자의 사회주의에 대한 목가적인 환상으로는 절대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

이 소책자는 자본주의에 대해 비판적이고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들에게 일시적인 지지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심화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자계급은 착취와 억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악행을 묘사하는 사회주의자들보다 멀리 나아가게 된다. 따라서 소책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계급투쟁을 이해하고 과거 혁명운동의 경험들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보다 주요한 역할이 되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을 기독교도들로부터 구분해주는 것의 하나는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유토피아적 이상사회를 내거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계급투쟁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사회조차도 계급투쟁의 연속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ABC에 대한 문제

이제 소책자의 기본적인 사상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만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하나는 “노동자민중의 현재 소득과 미래소득에서 ... 자본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민중이 수탈당한다”(9쪽)인데, 이는 생산의 영역에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고찰하지 않으려는 부르조아 경제학의 방식으로 사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맑스주의

의 계급 구분은 개개인의 소득이나 직업으로 판단되지 않고, 생산수단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확증된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통제하에서 일하면서 죽지 않을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이란 개념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소득”이 오타라 하더라도 노동자들에게 “미래 임금”이란 더더욱 있을 수 없다. 아직 생산과정에 투입되지 않은 미래의 노동에 대해

자본가들은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미래의 노동에 대해 미리 “수탈”당할 수 없다. 자본가는 생산과정에 투입된 노동에 대해서만 착취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자의 임금은 자본가와와의 투쟁 속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 그것이 노동력의 재생산비용이라 불리는 임금이 아닌가?

소책자에서 “소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은 사회주의자가 노동자계급만의 입장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혁명적인

세력으로 인정하기를 꺼리고, 자본주의로 인해 몰락해가고 있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소부르주아지를 대변하려는 열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는 소부르주아 진영중의 일부가 자신의 입장을 버리고 노동계급의 입장에 설 때에만 함께 할 수 있다는 혁명적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다.

소책자에서 “노동자민중의 현재소득과 미래소득”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중이라 불리는 자영업자, 농민에게 존재하지 않는 임금에 대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과 소부르주아지 둘 다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소부르주아지의 이해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노동계급의 입장에서부터 멀어지고 반동적이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한 환상을 좇는 것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그것의 비근한 예가 기본소득제로 표현되는 소부르조아적 고안물이다. 모든 시민이 기본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소망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착취제도는 그것을 환상으로 만들어버린다. 자본가계급의 생산수단을 몰수하지 않고 자본가들이 노동착취로 축적한 자본의 일부를 다시 분배해달라는 요구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기본소득제 구상은 어떤 계급이 생산을 장악하고 통제할 것인가를 둘러싼 전투가 아니라 자본주의는 영원하다는 전제 아래서 항상 패배한 전투의 결과에 대해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200년 전의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이었지만 지금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몽상가들이다. 사노위의 소책자가 몽상가들을 모집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지 않고 사회주의자로서 대중들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소책자 2부인데, 여기에서는 사회주의에 대해 “... 어떤 계급도 착취도 억압도 없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다!!”(20쪽),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 사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되지 않는 ... 바로 이것이 사회주의다.”(21쪽)라고 하고 있다.

사실 사회주의에 대한 유토피아적 묘사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기본원리를 사회주의로 둔갑시키는 것이 불가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기본적 지식만 있었어도 사회주의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소책자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정신은 “사회주의 재구성”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이것은 명백히 공상적 사회주의다!



기고메일 : cswp-seoul@jinbo.net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서울지역위원회
swc.jinbo.net